

보도일시	2025. 05. 19. (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기후위기 유권자 목소리 경청한 민주당 기후대응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분명한 원칙”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19일(월),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후보 캠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는 민주당 선대위가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체결한 ‘원자력산업인 정책협약’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행위”라며 규탄하며, 현장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시민사회의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기후위는 입장문을 전달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을 추진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탈탄소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8일) 진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TV 토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신속히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원전은 위험성과 지속 가능성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위는 이날 전달받은 입장문을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끝/